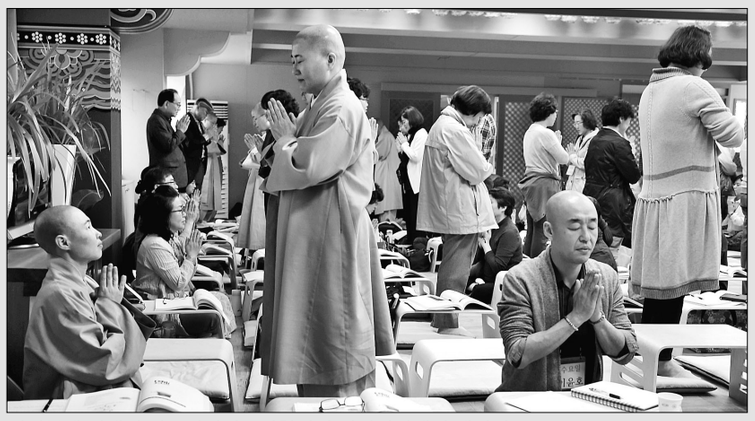
# 新 불자상 정립·신행단체 재도약 다짐

## 2016 신행 · 포교 결산


지난봄에 진행된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의 명상아카데미 대강좌.
사진제공=한국명상지도자협회

올해는 현 시대에 맞는 불자상 정립을 위한 노력과 각종 신행단체들의 10 · 20주년에 맞춘 재도약을 다짐하는 해였다. 아울러 명상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불교계 명상강좌가 잇달아 열려 성황을 이뤘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조계종이 내년 상반기 신(新) 불자상과 청규를 마련해 불자들의 신해행증(信解行證)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혀 신행문화가 한층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또 이와 함께 교계 청소년단체들이 비전을 발표해 젊은 인재 양성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 신행장려 방안 연구

2015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공석으로 남았던 조계종 포교원장직에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이 지난 3월 취임했다. 스님은 7대 포교원을 꾸린 뒤 5개월 장고(長考) 끝에 '신행혁신운동'이라는 포교종책을 내놨다. 그러면서 '새 불자상 정립'이라는 기조를 세웠다. 이는 수행과 지계에 무관심한 불자들의 마음가짐을 바꿔 실천에 나서도록 독려하고자 한 것이다.

포교원은 이를 위해 하반기동안 수차례에 걸쳐 신행혁신운동 연찬회를 열고, 주체적인 불자를 양성할 수 있는 불자상을 모색했다. 이후 12월 10일 제5차 포교종책연찬회서 '초안'이라 할 수 있

**조계종단 새 포교종책 발표**

**불교계 명상강좌 대폭 늘고**

**청소년단체는 비전 내세워**

**신행문화 확산 일신에 효과**

는 불자상과 청규를 제시했다. 포교원은 '붓다로 살자'는 슬로건 아래 신행혁신운동 이념을 '정법서 벗어난 신행을 혁신해 붓다의 삶을 따라 지혜를 닦고 자비를 실천하는 운동'으로 정리했다. 포교원 산하 신행단체를 비롯해 승가단체, 명상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신행혁신을 위한 주체로 삼고, 핵심신도와 잠정적 불자를 타깃으로 설정했다. 신행지침서 · 수행록 · 신행요강 등을 방편으로 삼았다.

하지만 "기존 불교운동과 변별력이 보이지 않는다" "단순하고 실천 가능케 해야 한다"는 많은 토론자들의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포교원은 대중의 의견을 취합해 관변운동에 그치지 않는 더욱 내실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연구에 들어갔다.

### 미래 꿈꾸는 신행단체

불교계 청소년포교와 인재양성을 위해 출범한 청소년교화연합회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각각 출범 50주년과 20주년을 맞았다. 1966년 운문 스님과 안병호 거사 등 불교계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범종단 차원의 단체로 문을 연 청교련은 교육부 청소년단체활동인증 학생 생활기록부 등재 단체로 승인받아 활동 중이다. 현재 16개 지부와 4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초 · 중고교생 및 지도자 등 3만8천여 명의 회원이 있다. 청교련은 50주년을 맞아 기존 예술경연대회를 비롯한 문화사업, 체험 · 봉사활동 · 국제교류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미래 50년을 꿈꾸며 청소년들에게 진리와 자비의 근본정신을 심어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1996년 조계종단이 청소년포교를 위해 출범시킨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파라미타 점핑(Paramita Jumping)'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현재 23곳인 초교분회를 2026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하고, 전국 교원대학에 대학생 그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국제불교청소년캠프를 시작으로 국제교류에 나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외에도 선묵 혜자 스님의 108산사 순례기도회가 10주년을 맞아 5권 분량의 백서 〈희망의 연꽃으로 피어난 9년〉를 발간하고, 고불식을 올렸다. 아울러 '평화의 불' 이운과정을 담은 기행화보집 〈발길 닿는 곳곳마다 평화의 불 수놓다〉 발간 기념식도 열어 불자들의 신행원력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격려했다.

### '명상BOOM' 발맞춘 불교

과학문명의 발달과 자본주의 폐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명상'이 새로운 사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에 불교계에선 대규모 명상아카데미와 석학 초청 명상강좌 등이 잇달아 열렸다.

먼저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지난봄과 가을에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20여 명의 명상지도자들이 위빠사나 · 명상상담 · 가피명상 · 자비명상 · 참선수행 등을 교육하며, 인터넷강의도 마련했다. 또 교육과정을 '명상전문지도사' 자격 획득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만들어 참가자들의 동기부여에 무게를 더했다. 협회는 참가 인원을 200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400여 명이라는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대한불교진흥원은 미국 임상심리학자 스티븐 힉맨 박사를 초청해 '현대인의 번아웃 증후군 예방을 위한 마음챙김과 자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 자리서 힉맨 박사는 명상과 현대 심리치료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삶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마음챙김 방법을 설명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국내 명상수행 명사들이 지도하는 연속강좌를 열었다. 여성개발원은 오원칠 · 김흥근 법사의 '간화선' 주제 강좌를 통해 좌선 · 실참 · 질의응답 등 이론과 수행을 병행해 호평을 받았다. **윤호섭 기자**

# 익명보살 후원 Story '라디오는 자비를 싣고'

**조계종복지재단 통해 기부**

**김태형 군 외 3명에 각 100만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함결 스님이 뇌변병 장애 1급 김태형 군 보호자 김용길 씨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익명의 보살이 후원금을 통해 4명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12월 20일 조계종복지재단 6층 프로그램실서 저소득 아동 결연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익명의 보살이 기부한 400만원을 후원했다. 현장엔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뇌변병 장애 1급 김태형(13) 군과 보호자 김용길(68) 씨가 대표로 참석해 100만원을 전달받았다.

김태형 군은 좌측 고관절 수술 이후 지속적 신체 변형으로 물리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경제여건이 풍족하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길 씨는 "처음 후원 소식을 들었을 때 때마침 뇌변병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운동기구(기립기)를 구입할 수 있겠단 생각에 정말 기뻤다"며 "얼굴도 모르는 보살로부터 커다란 선물을 받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계종복지재단 산하 보문종합사회복지관 · 영주시장애인복지관 · 전라남도장애인복지관서 총 3명의 아동이 각 100만원씩 후원금을 받게 됐다.

조계종복지재단 측에 따르면 익명의 보살은 평소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 애청자로, 복지재단과 여성가족부가 협력 중인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방송을 듣고 지난 11월 후원을 결심했다.

이 보살은 조계종복지재단에 전화로 후원 의사를 밝히며 "굳이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잘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함결 스님은 "용기 내 실천한 나눔은 각박한 세상서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데 힘이 된다. 소외된 이웃 삶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나눔동참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조계종복지재단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 서울 도심서 배우는 화두참선

**조계사 참선입문 19기 모집**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이 쉽게 간화선 수행을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사(주지 지현)는 내년 1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 저녁반 2차례에 나눠 19기 참선입문 과정을 진행한다. 오전반은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저녁반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조계사 관음전에서 진행되며 간화선의 원리와 수행체계에 대한 강의와 문답, 좌선, 수련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화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직접 내리며, 지도법사는 조계사 선감 운문 스님이 맡는다.

구체적인 강의 순서는 △1월 3일 입재식 및 오리엔테이션 △1월 10일 '간화선으로의 초대' △1월 17일 '간화선으로의 초대' △1월 24일 '정견을 통한 자유로운 삶' △1월 31일 '정견을 통한 자유로운 삶' △2월 7일 '간화선의 원리와 수행체계' △2월 14일 '화두알기와 들어보기' △2월 18일 수련회 △2월 21일 화두실참 △2월 28일 수행공동체의 길 등이다. 교재는 자체교재로 진행되며 회비는 25만원이다. 한편, 조계사 참선전문수행기관인 선림원은 2017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 (02)768-8525 **노덕현 기자**

# 장애불자 · 마가 스님 함께 명상송년법회

**보리수아래, 12월 17일 자비명상으로 신심 다져**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과 보리수아래 회원들이 12월 17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서 송년법회를 하고 있다.

장애불자들 모임 보리수아래(회장 최명숙)는 12월 17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연수실서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을 초청, 자비명상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보리수아래 회원과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이 함께한 법회에서는 중증 장애를 극복해낸 닉 부이치치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자신의 장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냈다. 이어 마가 스님은 사무량심을 주제로 행복 명상에 대해 법문했다.

마가 스님은 "자기 행복을 만드는 것은 자신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 그래야 비로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며 "지금 내 행동과 말, 생각이 곧 나의 미래가 된다.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자신을 돌아보라"고 당부했다.

마가 스님은 이후 보리수아래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돕고자 후원금도 전달했다. 이에 최명숙 회장은 회원들의 글이 담긴 책 등을 선물했다. 마가 스님의 법문이 끝난 뒤에는 일원 스님과 경전을 독송하며 신심을 다졌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 도 모 집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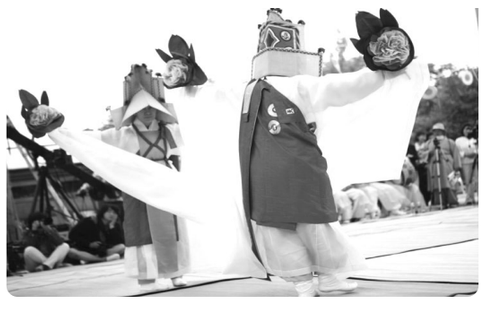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 제11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